

지역경제 위기 극복...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시, 31억원 예산 지원해 10% 할인율 적용 추진 발매기념 성공적인 유통 위한 기념행사도 가져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발매를 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한 기념행사를 공설시장 북문 입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노총 군산지부 고진근 의장 NH농협 군산지부 김규창 지부장 시의원 상인회 회장 및 금융기관장, 각 협회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풍물패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추진 경과보고, 희망풍선 세레머니, 경품권 지급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

으로 판매되어 실질적으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군산시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발매기념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몽치면 뜬다! 경제야 날아라!' 희망풍선 세레머니를 통해 군산시의 경제도 힘껏 날아오르기를 다 함께 기원했다.

이날 군산사랑상품권 100, 200, 300번씩 구매 경품이벤트 당첨의 행운을 얻은 시민들은 "상품권을 10%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까지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상품권 유통이 더욱 활성화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군산시의 경제도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기념해 심보군 행정안전부 차관과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3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발매를 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한 기념행사를 공설시장 북문 입구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공설시장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등 얼어붙은 소비욕구를 녹였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장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행정안전부에서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상품권 발행권종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이며, 발행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1인당 구매하는 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내 농협 및 전북은행, 신한, 새마을금고 등 4개 은행 72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5,000여개소가 가맹점 가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관내 모든 업소가 가맹점 가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가맹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454-28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 6512억원 반영 성과

중앙부처 수차례 방문·사업 필요성·당위성 적극적 설명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은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에 6,512억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인 6,412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2019년 국가예산도 6,750억원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과는 정 시장이 세종시 정부청사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담당 국, 과장 등을 찾아 익산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힘입은 덕이다.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안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보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보호 용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55억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HR) (40억원) △20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38억원) △농촌지역개발 기초생활거점 공모 등(15억원) △익산시립 금마도

서관 건립(15억원) △주요디자인 임대공장 건립사업(14억원), 스포츠문화 예술화관 리모델링공사(1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비축공급센터구축(10억원) △익산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10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5억원) 등이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8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 사업(5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사기지역)(47억원) △남부, 3. 북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43억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40억원) △왕궁천 하천 정비사업(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시는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해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수시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본격화해 국가예산 6,75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

익산시가 3일 통합문화전수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참여자 및 부서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2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생활체육 인턴강사 지원사업 △축제·행사 기획 전문인력 사업 △청년 주얼리 전문인력 지원사업 △건강카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청년 18명을 선발했으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개월 동안 각 사업 현장에서 근무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관광안내 전문인력 친절서비스 교육

10월에 열릴 체전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이미지 제고

익산시가 3일 가림문화관에서 관광안내 전문인력(문화관광해설사, 익산문화해설사)에 대해, 관광안내원 33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장애인) 체전(이하 양대 체전)에 익산시를 방문할 선수 및 임원단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친절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해설 역량강화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순 강사의 '나의 고객응대는 익산시를 대표한다'는 주제로 관광객 성향별 응대법, 이미지 메이킹, 인사법 등 시연을 통한 알찬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수강한 관광안내생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은 항상 기본이지만 더욱 특별한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처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한 분 모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을 찾는 고객

을 처음 맞이하는 관광안내 전문인력들은 시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며 "친절한 관광안내와 해설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어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관광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광안내 전문인력 33명은 양대 체전 기간 동안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시티투어(팝투어) 운영, 관광지 현장해설 및 안내로 익산 문화관광 홍보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민선7기 첫 추경예산안 1193억원 증액 편성

군산시가 총 1조 1,3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069억 원보다 1,193억 원(일반회계 1,017억 원, 특별회계 176억 원)이 늘어난 1조 1,3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동차 및 조립 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뒀다.

또 강임준 시장의 민선7기 생활공감 사업 실현을 위해서 50억원을 반영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업정기 보급 등 미세민중 대응사업 20억원 ▲학교주변 가로등 확충 5억원 ▲스마트 방범용 CCTV와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을 위한 사업 6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억원 ▲유기동물보호 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도 감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민편드 태양광발전소 조성, 소상공인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등의 사업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엔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4일부터 열리는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9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상호대차서비스 22개 도서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

익산시가 4일부터 익산지역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책이름 기반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

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소장중인 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대출 서비스로 시민들은 그동안 시립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만 상호대차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면 확대 시행되는 4일부터는 소장하고 있는 총 88만 여권의 도서를 상호대차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대차서비스 이용방법은 첫째, 가까운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책이름 회원증을 만든다. 둘째, 보고 싶은 책이 방문한

도서관에 없는 경우 익산지역 21개 도서관 중 해당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한다. 셋째, 신청한 도서가 도착했다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신청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한다. 넷째, 다 읽은 책은 신청한 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도로보수원·수로원 대상 안전 보건교육 실시

군산시는 최근 도로보수원과 수로원을 대상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문종길 차장을 초빙해 현장업무 수행하는 도로보수원과 수로원들에게 도로보수공사 작업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

로자 행동요령을 설명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현장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발열성 질환 예방 등 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김정훈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